PA-37

땅콩 논 재배의 재배적 특성과 수량성

김영상[1]*, 김기현[1], 허윤선[1], 이명희[1], 지영희[1], 김인재[1], 김익제[1]

[1]충청북도농업기술원

[서론]
논에 밭 작물을 재배하면 쌀의 수급 조절은 물론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식량부족시에는 언제라도 쌀을 생산할 수 있어 논을 탄력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. 하지만 논은 밭과 달리 물 빠짐이 나쁘고 습기가 많아 수분과다로 습해를 받아 생육불량 및 수량감수 문제가 발생하며 폭우시에는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. 본 연구는 논에 땅콩 재배시 재배적 특성을 구명하고 몇 몇 품종의 생산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밭 작물을 논에 재배시 가장 문제점은 배수불량에 의한 습해피해이다.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장 주변에 60×60cm으로 배수로를 설치하고 중앙에는 25m 간격으로 중앙배수로를 설치하였다. 시험재료는 신팔광 땅콩 등 8품종으로 두둑 높이를 20cm으로 하고 재식거리를 40cm(조간) × 20cm(주간)으로 2줄로 재배하였다. 5월 7일에 정식하였으며, 재배관리는 땅콩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관리하였다.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, 수량구성 요소, 도복, 습해 등을 농촌진흥청 시험연구 조사기준에 준하여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개화기는 대광 품종이 6월 9일로 가장 빨랐으며, 대풍 품종이 6월 23일로 가장 늦었다. 정식 후 60일 생육은 캐이올이 주경자, 분지장이 가장 작았으며, 도복이 발생한 품종은 대풍, 대광이었다. 품종별 수확기 생육상황으로 주경장 및 분지장은 팔광, 케이올, 다안 품종이 짧았으며, 분지수는 팔광, 신팔광, 대풍, 아광 품종이 15개 이상이었다. 땅콩 품종에 따른 성숙협 비율은 68~75.4%이었으며 100립중이 100g 이상인 품종은 팔광, 다안, 대풍, 대광, 백중 품종이었다. 땅콩 수량은 아광 품종이 396kg/10a 으로 가장 많았으며, 다안과 케이올 품종은 350kg/10a 이하이었다. 논 재배 중 생리장해 및 병해충 발생상황은 도복은 케이올, 대광 품종이, 습해는 신팔광, 대풍 품종이 높았으며 갈반병은 케이올, 대광, 아광 품종이 높게 발생하였다.

[사사]
본 연구는 논 이용 특용작물(땅콩, 도라지) 안정생산 기술개발과제(과제번호 : PJ015347) 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*Corresponding author: Tel. 043-220-5571 E-mail. suanbo@korea.kr